

“촛불에 화답하기 위해 노력했던 한 달”

靑, 文정부 취임 30일 기자회견… “겸손한 권력으로 강력한 나라 만들겠다… 외교, 어긋났던 마디들 맞추는 과정”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한 달을 앞둔 8일 그동안 보여왔던 행보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이게 나라냐’고 물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에게 화답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었다”고 지난 30일을 평가했다.

윤 수석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가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목적의식은 분명하다면서 “이런 국정 철학에서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기존 관행을 타파하는 등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직접 주요 인사를 발표했던 순간을 언급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돼 주요 사안을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위원회 설치,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5·18기념식서 입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4대강 보 개방 등을 지시했다”며 “모두 시급해 손놓을 수 없거나, 결단력 필요한 문제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직 국민들과 눈을 맞추고, 아픔을 겪으며,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관심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독립운동가의 태극기와 전장에서 태극기가 연결되고, 파독 광부의 고단함이 청계천 노동자의 고단함으로 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어지며, 5·18 어머니의 원통함이 세월호 부모의 원통함으로 이어지는 통합의 시선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은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회피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외교·안보분야 평가에 대해 “북핵문제, 사드문제, 중국 경제보복 문제 등 이런 상황에서 시작했다”면서 “어찌보면 그동안 흐트러지고 어긋났던 마디들을 하나씩 온전히 맞추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국 정상과의 통화를 통

해 새 정부 출범을 알렸고, 미국·중국·일본에 파견한 특사단을 통해 대통령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며 “이어지는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직접 만나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많은 나라들과 새롭게 관계를 시작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당, 강경화 ‘부적격’ 결론

김상조·김동연 채택 가닥… 김이수 ‘청문회 후 결정’

국민의당이 8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준에 관해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부적격 취지의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기로 하고,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채택 거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조건부 채택’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채택 협조로 가닥을 잡았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이날 진행되고 있는 2일차 청문회를 지켜본 후 채택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세금탈루, 거짓해명 등 도덕적 흠결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 흠결을 만회할 만한 업무능력이 발견되지 못했다”며 “외교부 개혁과 4강 외교 등에 대한 비전 제시도 매우 초보적이고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어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이 이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인준될 경우) 최초의 여성 외교부장관이고 외교부 기수 출신이 아닌 외교관이 외교부 수장이 되는 데서 오는 기대하는 측면,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나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부족했다는 결론으로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장전입과 관련해 당시 이화여고 재단이 갖고 있었던 외국인 선생님 숙소로 이용했던 아파트 성격을 알지 못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대목에서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여세에 관해서도 해운대 콘도라든지

거제도 땅, 봉천동 모친 빌라의 재건축 과정에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또 “봉천동 빌라 재건축 과정에 대해서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겠다고 후보자가 얘기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강 후보자를 다시 청문회에 출석시켜 질의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들이 있었고 그런 쪽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병역회피 의혹 및 4대강 정책수립 등을 거론하면서도 “청문회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당론이 모아졌다”고 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초 첫날 청문회 이후엔 채택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이틀째 청문회가 진행되며 유보적 입장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8일 청문회가 중인·참고인 불출석 문제로 한때 파행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 수석은 “청문회 절차가 파행되고 있으니 절차가 끝난 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명길 대변인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에 응하기 위한 조건으로 김 후보자 부인의 두 번째 재임용 과정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을 위원회 차원에서 의뢰한다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당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런 주 수석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하기만 했는데,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채택을 하지는 중재안을 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운천 의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전주시)은 8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식품부와 축산농가의 의견을 조율하며 마련한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에 가축개량센터 설치 및 축산업 정기점검 책임 강화 농식품부의 축사환경 개선계획 수립 및 인공수정사교육 실시 축산업 신규허가시, 처리시설과 배출시설 허가 및 매물계획 제출 중요도가 아닌 오리의 번식 사용 금지 축산발전시책에 ‘축사환경 개선’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그동안의 끈질긴 노력끝에 AI 발생 시군의 재난구조부대 특진사를 살처분 작업에 신속투입 시키는 등의 정책적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와 상인은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늘 소통하며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는 김영우, 황영철, 유의동, 이학재 의원 등 바른정당 최대특위 위원을 포함하여, 홍일표, 최연혜, 홍문표, 이종배, 김세연, 오신환, 정양석, 지상욱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김진성 기자

김관영, 장애인선거인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선거관련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의 청점권 보장을 위해 수화통역사를 후보자마다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군산)은 청각장애인의 알권리와 청점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의 방송 또는 개최 시, ▲자막 또는 수화를 반드시 방영하도록 하고 ▲수화통역사는 후보자마다 둘 수 있도록 하며, ▲수화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청점권은 모든 유권자에게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에 꼭 개정안이 통과되어 장애인 유권자들이 수월하게 후보자 간 정책을 비교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의 발의에는 국민의당 이동성, 조배숙, 오세정, 김삼화, 권은희, 주승용, 최명길, 신용현, 이찬열, 최도자 의원 10명이 동참했다. /김진성 기자

평화통일 염원 72년 남북미술전 19일~23일 열려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이춘석 위원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 임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통일부와 IDC(국제협력위원회)가 후원하는 평화통일 염원 72년 남북미술전 ‘백두에서 한라까지’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로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미술전에서 큐레이터를 맡은 최순근 전 대구예술대 교수는 “남과 북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 100여점이 전시될 예정인 금번 전시회에서는 북측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장 최창호 선생이 그린 5월의 백두산과 남측 조광기 화백이 통일의 염원을 담아 우주에서 바라본 백두산천지의 모습을 담아낸 ‘천지’가 만나게 될 것이다”며, 그동안 “중국 쪽에서만 바라볼 수 있었던 백두산을 우리나라 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동포들의 삶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궁금하였던 리캐대(경북 칠곡), 정창모(전북 전주), 정은녀(강원 삼천리), 리석호(경기 안성), 정종여(경남 거창) 등 월북 작가들의 작품들을 포함한 북한의 대표적인 인민예술가와 공훈예술가들의 조선화·유화·판화 등 순수미술을 접함으로써 72년 동안 반쪽밖에 볼 수 없었던 한민족의 미술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

Healing 여행!

장수는 심심계곡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로 발길 닿는 곳곳이 관광휴양지이며, 고랑 고랑 먹거리마다 청정장수가 주는 선물로 가득합니다.

봉화동 자연휴양림

봉화동계곡

송마세움장
외동자연휴양림 물별매장

장수물 검색